

전통이라는 이름의 폭력, 여성할례

하루에 6000여명, 전 세계적으로 매년 1억 3천만 명이 받은 여성할례

장유진



여성할례(Circumcision 또는 FGM-Female Genital Mutilation), 내가 만든 방송 프로그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다. 이 아이템을 정한 뒤 나는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자료조사를 하던 중에 제8회 여성영화제에 소개되었던 킴 로지노프 감독의 '잊지 못할 그날'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게 되었다. 여성할례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눈으로 보는 순간 많은 충격을 받았고 나도 이 사실을 방송으로 반드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2005. 12월 마지막 날. 신년을 맞이하여 다소 들떠 있는 분위기를 뒤로하고 아프리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오랜만에 가는 해외촬영에다 아프리카는 처음이었다. 아프리카도 처음이었지만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가 있는 줄은 알았다.

처음에 많이 발전되었다고 들었지만 내가 갔을 당시에 도시에 전기도 없었고 도로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어 많이 낙후된 나라라는 느낌을 받았다. 여성할례는 연말에서 신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시골을 중심으로 행하여진다고 하였다. 도시에서도 암암리에 한다고 하지만 몰래하는 경우이고 시골에서는 전통적인 의식을 통하여 한다고 해서 시골로 취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

매년 새해가 되면 할례의식이 치러진다는 정보를 듣고 취재에 나섰다.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에서 차로 6시간의 감비아 마을. 많은 여성(일명 '소사이어티'란 그룹공동체)들이 모여서 할례의식을 치루고 있었다.

할례에는 많은 종류가 있다. 그중 대부분은 음핵을 제거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외부 생식기를 부분적 혹은 전부 제거하는 것이다. 대대로 내려오는 마을전통이라는 이유로 시에라리온에서만 90%이상의 여성이 이를 경험했다. 사회에서 그 구성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여성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를 받은 여성만이 공동체에 서 인정을 받고 결혼을 할 수 있다.

이 의식은 여성으로 존재하기 위한 처음이자 마지막 방법이다. 만약 이 의식의 구성원으로 참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남편을 구할 수 없다. 할례를 받지 못하면 결혼할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의식을 거행하지 않은 여성과는 결혼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비아의 한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할례의

식을 위해 춤을 추고 있었고 8명의 여성이 할례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거기서 '둔부아'라는 아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 아이의 나이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 여성이 아닌 유아에 가까운 아이가 할례를 받는다! 너무나 어이가 없고 충격적이었지만 이곳에선 흔한 일이라고 했다. 딸을 가진 부모로서 할례의식을 하려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그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소년들은 상처의 통증을 줄여준다는 기쁨을 바른 것 외에는 아무 조치도 받지 않는다.

딸에게 할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 물어서도 안 되고,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해서도 안 된다. 마을의 규율에 맹목적으로 행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할례가 이뤄지는 장소는 '분두'라 불리는 곳으로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데 마을사람들에겐 성스러운 자리이자, 남성은 물론 할례를 받지 않은 여성조차 절대 접근할 수 없다는 '금지구역'이었다.

할례의식 후에는 대대적인 마을 축제가 다시 시작되고, 분두에서 나온 소녀들에게 화려한 옷과 신물이 주어졌다. 이제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난 소녀를

할레의 후유증은 심각한 출혈과 파상풍, 쇼크가 있으며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고 만성적인 감염과 반복되는 출혈, 우울증이나 정신이상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둘러싸고 이웃들의 축하 세례는 계속됐지만 할레를 받은 소녀들의 표정은 그리 기뻐 보이지 않았다. 너 무나 이른 상태에서 밤세도록 마을 사람들과 같이 춤을 추야 하기 때문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1억 명의 상의 여성들이 이 할례의식을 치렀다. 이집트등 일부 국가에서 최근 할례 금지법이 제정되었지만, 뿌 리 깊은 할례전통은 극소수의 상류층만을 제외하고 는 철저히 고수되고 있다. Women's International Network라는 단체의 조사에 의하면 수단 여성의 98%, 이집트 90%, 소말리아 99%, 에디오피아 90%, 에리트리아 90%, 시에라레온 95%의 여성이 할례를 받았다고 추정하고 있다.

남성의 경우 할례, 즉 포경수술은 원래 종교적인 의미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위생을 위한 것이고 매우 간단한 수술이지만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욕 을 완전히 제거하고 처녀성을 유지하는 두 가지 목 적을 지닌, 매우 위험하고 야만적인 폭력이다. 할례 의 후유증이 건강을 얼마나 해치는지는 자명하다. 유니세프 조사에 따르면 잘라지는 정도에 따라 그 후유증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육체와 정신건강 모 두에 피해를 준다고 한다. 종종 나타나는 육체적 후 유증으로는 심한 출혈, 감염(특히 파상풍) 그리고 쇼 크가 있다. 심지어 사망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장유진 PD, (주)미코필름 대표, MBC헤어시어 프로그램 W를 위한 500만 제작하였으며 MBC스페셜, EBS '다큐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였다. 현재 기독교미디어카데미 운영위원이며 영상기획과 제작을 강의하고 있다.



기독교인과 정치참여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조망

백승현

기독교인과 정치참여

현대 민주사회에서 국가사회로부터 벗어나 정치와 무관하게 또는 절연한 채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점에서 정치는 인간실존의 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 점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 일 수가 없다.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자 시민으로서 우리는 투표하기도 하고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입 장을 지지하기도 한다. 선거 때마다 어느 후보에게 표를 던질 것인지, 어느 정당과 어떤 정책을 지지할 것인지, 연이어 발생하는 각종 정치 사회적 이슈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판단과 선택에서 우리 는 기독교적 신앙의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살피고 가능하려 할 것이다.

종교와 정치 분리원칙에 대해

그런데, 여기서 제기되는 첫 번째 질문이 있다. 기 독교 문명권 북미 유럽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 개념이 확립되었는데,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는 바로 이 원리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현 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

분의 국가들에서는 18세기부터 확립되기 시작한 종 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인정, 존중하고 있다. 그 러나 엄밀히 따지면,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이후 서 구에서 확립된 전통은 '종교와 정치의 분리'보다 '교 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가 더 적절한 개념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개념이 혼 용되고 있는데, 헌법 제20조에서는 종교의 자유 및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여하튼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종 교 또는 신앙생활을 사적인 문제로 보고, 정치를 공 적인 문제로 여기는 것에서 출발한다. 국가는 개인 의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종교와 교파별로 각기 다를 수 있는 예배절차와 형식 등에 대해 간섭하거나 또는 국교를 지정해 강제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회조직이 국가 의 운영에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제기된 원칙이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현실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조직교회 차원에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참여해야한 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개인적 차원에 서 기독교인 시민답게 그 신앙에 비추 현실정치 문